

1987년에 제정되어 우리 사회 여성노동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이 2007년 9월 제7차 법 개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는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변화와 이와 같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정책입안에 수용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2008년 젠더리뷰 겨울호에서는 “일·가족 양립정책의 실현과 성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기획특집을 마련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일·가족 양립’은 다양한 관심과 상이한 정책 목적하에 사회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군에서는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출산율을 올려볼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성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해 볼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관심에서든지 간에 ‘일·가족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성원들의 부모된 권리와 노동자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생활’이 온전히 복원됨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상생하는 데에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밖에 여성·가족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연구를 통하여 여성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을 글로 담아 보았다. 다양한 읽을거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곡절 많았던 2008년을 마감하고 새롭게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 새해에는 젠더리뷰에 쏟아주신 그 동안의 관심에 부응하여 더욱 더 창의적이고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